

大學・中庸에 나타난 語彙들의 相關性

洪 瑀 欽

<目 次>

- | | |
|------------|--------|
| 一. 緒 言 | 四. 誠 |
| 二. 性과 明德 | 五. 結 語 |
| 三. 八條目과 中庸 | |

一. 緒 言

儒家思想의 主流을 이루고 있는 古典은 四書三經인데 이 중 《大學》과 《中庸》은 그 入門書인 동시에 최고의 根本道理를 설명해 둔 理論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大學》과 《中庸》이 儒家思想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또한 중요하다. 특히 이 두 책은 性理學의 基本理論을 具現하고 있는 만큼 宋代 이후 中國學界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高麗末 이후 朝鮮朝에 있어서는 학생이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기본교재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 담겨진 哲學은 朝鮮朝 500년 동안의 思想界에 있어서 正統權座에 군림하게 되었고, 그 결과 政治・經濟・社會・文化 全般은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두 그 指針에 依해 운영되었던 것 같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儒家思想의 哲理的인 체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韓國文化史의 한 분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大學》과 《中庸》에 대한 이해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다.

필자는 文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철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과거의 한문학이란 대개가 일정한 철학적 교육지침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그러한 문학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철학의 내용을 공부하는 데서 어떤 연구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수 없다. 필자가 이 글을 써 보려는 의도도 여기에 있다. 좀려서 말하면 朝鮮朝의 漢文學은 이 性理學의 교과서인 《大學》과 《中庸》이 가리키는 향방을 벗어나 독자적인 이상 세계를 개척해 나가기를 꺼려했고, 또한 그러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짐작

된다. 만일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異端이란 낙인이 찍혀 사회활동면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예도 있었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상향방의 한 척도가 될 수 있었던 일정한 지침서의 핵심을 파악해 봄은 문학을 연구하는 작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철학체계의 이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그 철학 자체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이며, 둘째는 그 가르침이 문학으로 승화할 때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여기서는 후자를 위한 준비공부로서 《中庸》과 《大學》에 쓰여진 몇몇 術語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 보기로 하겠다.

二. 性과 明德

《中庸》은 그 제일 첫장에서 「하늘이 명령한 것을 性이라 하고, 性을 따르는 것을 길이라 하며, 길을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했고, 《大學》은 「밝은 德을 밝힌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性」과 「德」이란 무엇인가. 性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絕對善의 天性이다. 하늘이란 만물의 근원이며 진리의 본체이다. 하늘이 만든 事象이나 명령한 실체는 바로 하늘 그 자체의 分化이기 때문에 고치거나 거역할 수가 없다. 오로지 그것을 따르고 지켜나갈 뿐이다. 그러나 하늘이 하늘의 「性」을 인간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부여된 하늘의 「性」은 인간의 마음(心)에 가리워져 때가 끼고 빛을 잃을 우려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性」을 깨닫고 그것을 평생토록 지켜나가는 사람을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혹은 「성인」이라 부른다. 「聖人」은 하늘의 「性」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의 「性」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경지의 이상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세상에는 성인이 드물다. 모든 사람이 부여받은 하늘의 「性」은 꼭 같지만 그 하늘의 「性」은 공중에 뜬 태양과 같아서 맑은 하늘에는 밝고 빛나기만 하지만 마음의 점은 구름이 가리워짐에 따라 그 본래의 밝음을 잃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워서 밝음을 깨닫는 사람, 배워도 잘 안되어 큰 힘을 드려 밝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 하늘의 「性」을 상실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스스로 부르게 되며 남을 괴롭히게 된다. 가정을 파탄시키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하늘의 「性」을 고스란히 간직한 聖人の 눈으로 이러한 하늘의 「性」 즉 진리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성인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라. 가리워진 구름을 거두어라. 더럽혀진 때를 씻으라」고 호소했다. 그러한 어둠의 세계에서 광명의 본원으로 되돌아가는 노력을 「가르침」(敎)이라고하고 그 본원의 밝음을 지켜 나가는 것은 「진」(道)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진」(道)은 잠시라도 이탈할 수 없는 것이다. 진리의 길을 이탈함은 하늘의 「性」을 이탈하는 것이며, 하늘의 性을 이탈한 인간은 파멸의 세계로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달을 향해 달리는 인공위성이 정해진 궤도를 벗어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남이 볼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하늘의 「性」에 때가 묻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愼獨).

大學의 「明德」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진리의 「性」을 고스란히 지켜 나가는 사람마음의 총화를 이름이라. 어짐·옳음·질서·지혜·신의가 조화된 인간의 마음(德) 그것은 하늘이 명령한 「性」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大學은 「밝은 德을 밝히라」고 한 것이다. 밝은 「德」을 밝힘은 人性을 회복시키며, 진정한 人性의 회복은 天性和 合一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明德」은 곧 「性」이다라는 말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이렇게 「性」과 「明德」을 인간 본성의 바탕으로 보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지나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仁」사상 구현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었던 것 같다.

「仁」이 공자사상의 핵심이며 儒家思想의 정수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仁은 人이다.」(中庸)와 같이 「仁」의 원시적인 개념은 「人+二」 즉 두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글자다. 그럼 그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仁」이라 하는 것일까가 문제다.

「仁」사상의 주창자인 孔子는 「仁」의 뜻을 여러가지로 풀어서 설명했다.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와 입장과 필요에 따라 응답한 것이므로 얼핏 보기에도 매우 산만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 무슨 예로서 「仁」을 설명했었건간에 그 原意의 根幹에서 동떨어진 것은 없는 것 같다. 번지(樊遲)라는 제자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仁」이라 했고, 子張에게는 「공손하고(恭), 너그럽고(寬), 미덥게 하고(信), 민첩하며(敏), 은혜롭게함(惠) 등 다섯가지를 실행함이 「仁」을 행함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리고 「효도하고 공경함(悌)이 仁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고도 가르쳤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 「사람을 사랑함」이나, 다섯 가지 조항 및 효도와 공

경은 모두 「人+二=仁」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함이 「仁」의 바탕이다. 임금은 신하를 사랑하고 신하는 임금을 사랑함은 군신간의 「仁」을 이룸이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은 부부간의 「仁」을 실천함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恭·寬·信·敏·惠」의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조항은 인간이 인간다움의 도리를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이 다섯가지를 바탕하지 아니한 사랑(仁)은 인간이 아닌 일반 동물의 사랑과 구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들의 사랑은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을 한다. 너를 위한 「恭·寬·信·敏·惠」의 자각이 없다. 「내가 「나」의 존재를 중요시하듯 「너」의 입장을 높여 주는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性」에 근거한 마음이며 그런 마음에서 올어난 사랑은 「仁」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仁이란 자신이 서고 싶은 곳에 남을 세워 주고, 자신이 이르고 싶은 곳에 남을 이르게 함」이니 「자신이 하고 싶지 아니한 일을 남에게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또 때로는 「용서함」(恕)·「충성함」(忠)이 「仁」을 행하는 행동원리라고 깨우치기도 했다. 공자의 제자 曾子가 자기들의 길인 「仁은 患하고 恕할 따름」이란 말로 풀이했음은 그러한 연유에서다. 「患」은 「中+心」이니 마음을 바로 잡음이며 「恕」는 「如+心」이니 내 마음이 너 마음과 같고 너마음이 내 마음과 같음을 의미한다. 남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같이 즐거워 하며,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같이 괴로워 할 수 있는 마음은 충심이 잡힌 마음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내가 부귀영화를 좋아하면 남의 부귀영화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버릇에만 급급하여 종의 배고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상전은 「仁」이 없는 상전이다.

그럼 그러한 「仁」사상의 실현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아니한 일을 남에게 미루며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고통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인간습성에 젖어 있으므로 인간은 원래 악한 성질을 띠고 태어났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中庸》의 「性」과 《大學》의 「明德」은 「仁」사상 실현의 원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람은 원래 어두운 「德」을 띠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밝은 「德」을 타고 태어났으며, 따르지 못할 「性」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性」을 내려받았으니 그 원천이 「仁」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늘로부터 명령받은 「原性

을 그대로 따르며(率) 「밝은 德」을 때묻지 않게 그대로 밝혀 나가는 것이 곧 「너」와 「나」의 인간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근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이 「너」와 「나」와 「그」에 의하여 실현될 때 인류는 무질서의 모순과 투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최고의 이상경인 至善의 세계에 도달하고 또 머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三. 八條目과 中庸

《大學》은 인류가 이상의 세계를 이룩하는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밝은 德을 밝힘」이며, 둘째는 「남을 새롭게 함」이며, 셋째는 「지극히 착한 곳에 머무는 것」이다. 여기서 「밝은 덕을 밝힘」은 人性을 天性으로 회복시킴이며 「남을 새롭게 함」은 밝은 덕을 밝힌 그 자신의 광명으로 남의 어두운 곳을 비춰 밝게 해 주자는 것이다. 자기 혼자만이 밝음의 세계에서 소요하며, 남의 어두운 곳을 외면하는 것은 유가의 이상이 아니다. 자신의 밝은 덕을 밝힘은 몸을 닦음이며 그 밝은 덕의 빛으로 남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함이다. 전자는 천하의 큰 근본인 「中」을 확립함이며 후자는 천하에 통하는 길 「和」를 실천함이다.

하지만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남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바탕을 먼저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천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랑은 길서가 없는 사랑, 남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악의 사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깨우치거나 새롭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매하고 떠를 끼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고 말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大學》은 「밝은 덕을 밝힘」과 「남을 깨우침」에 대해 소상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사물을 관찰하여 지식을 이루며, 지식을 이루어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 뜻을 정성스럽게 함으로써 마음을 바로 잡고, 마음을 바로 잡음으로써 몸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집과 나라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사물을 관찰함에서부터 몸을 닦은 과정까지는 「밝은 덕을 밝힘」 곧 「中」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사물을 관찰함은 하늘이 부여해 준 이치를 귀납적으로 깨닫게 하자는 것인데, 거기서 얻은 불변의 진리는 정성스럽지(誠) 아니하면 안되는 자각심을 불러 이트키며 그 자각은 人性을 天性으로 되돌려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자각에서 얻어진 人性과 天性の合一은 밝은 덕을 밝힘의 경지 즉 몸을 닦음의 성취를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조건을 극복하고 얻어진 밝은 德은 「和」의 작용을 통하여 가정을 비추고 나라를 비추고 천하를 비춘다. 이 다섯 가지 밝은 덕을 밝힘의 과정과 밝은 덕이 남을 비추어 주는 세 가지 단계를 합쳐서 《大學》의 八條目이라 부른다.

그런데 《中庸》은 「밝은 덕」 즉 「하늘이 명령한 性」을 따르거나 거기에로 되돌아감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中」과 「庸」이란 말의 뜻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中」은 공간적인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물의 상태를 말하며(不偏之謂中), 「庸」은 시간적으로 끊임없는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음이 그것이다.(不易之謂庸)

다시 말하면 「中」은 똑 바로 섬을 뜻한다.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똑 바로 서야 한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그야말로 자립해야 한다. 그러나, 똑 바로 선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아니하다. 그 자립의 경지는 바로 「밝은 덕을 밝힘」의 경지이기 때문에 무한한 인격수련과 지식의 축적 위에서만 가능하다. 「中」을 확립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와 꼭 같이 중요한 것은 「庸」이다. 「庸」은 하늘로부터 받은 「性」, 「밝은 덕」을 그대로 지킨상태 즉 「中」의 상태를 조금도 허트리지 아니하고 보존해 나가는 불변한 힘의 작용을 뜻한다. 「性을 따름(率)을 길이라 한다」고 할 때 「率」의 지속성이 「庸」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中庸」은 「밝은 덕」을 밝히고 하늘로부터 명령받은 天性을 닦고 유지시켜 나가는 절대 불가결의 모형공식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자기완성의 현 단계에서 그 완성을 자만하게 되면 그 때부터 「中」은 기울어지고 「庸」의 작용은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中」은 영원한 「庸」을 수반했을 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 한다.

「中庸」은 그 지극한 것이로다. 백성들이 능히 실행치 못함이 오래 되었도다. 「공자 말하되 천하 국가도 가히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며, 벼슬과 월급도 사양하며, 시퍼런 칼날을 가히 밝을 수 있으며, 中庸은 능히 할 수 없다」는 「中」과 「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날 때부터 하늘이 명령한 「天性」을 고스란히 지킨 「聖人」이 아니면 모두가 이 「中庸」에서 저리가 먼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아는 자는 지나치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회(顔回)와 같은 사람은 「中

中庸을 택해서 하나의 품을 얻은 즉 받들어 모시고 가슴에 아로 새겨 잃어 버리지 아니함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때에 알맞음(時中)」이란 말이 그것이다.

아침에는 아침에 할일이 있고 저녁에는 저녁에 할 일이 있으며, 가난한 때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고 부유할 때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素貧賤行乎貧賤, 素富貴行乎富貴.) 이것은 하늘이 부여한 자연스러운 이치이므로 이 이치를 거역하거나 알지 못하면 인간생활에는 모순과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時中」이 「仁」사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仁」의 원시적인 개념에 의해서 「仁=人+二」이고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忠恕」한 것이라 한다면 「仁」은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킨 자체의 모순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상은 대단히 좋다. 그러나,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며, 내 마음이 너 마음이고 너 마음이 내 마음임에도 구별이 있다. 그 한계와 구별을 넘어 선 사랑이나 忠恕는 「仁」사상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라 새나 짐승의 그것에 가까워진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너를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면 남의 아버지, 남의 임금, 남의 아내를 나의 그것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만일 그렇게 되면 儒家의 근본 이상은 송두리채 파괴되어 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仁」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가 바로 이 「時中」이다. 내 아버지일 때는 내 아버지로서 섬기고, 남의 아버지일 때는 남의 아버지로서의 차이를 알고 섬기며, 남의 아내를 대할 때는 자기 아내를 대할 때처럼 무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庸」은 강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같이 平原에서는 윤투히, 계곡에서는 급유로, 모퉁이에서는 돌러가야 하는 「時中」의 원리를 쫓아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이며 인간의 윤리인 禮다.

여기서 하늘이 아닌 인간이 「中庸」을 지킴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인류가 인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天性」을 지키고 「맑은 德」을 밝혀 나가는 中庸은 지켜져야 한다. 그 오묘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나와 너는 제가 실 땅에서 제가 할 일을 하며 마음 놓고 살아 갈 것이다.

四. 誠

《大學》과 《中庸》에서는 「誠」이란 말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사물을 관찰한 다음에 지극히 옳은 진리를 알 수 있고, 지극히 옳은 진리를 안 다음에 뜻이 정성스러워질(誠) 수 있으며, 뜻이 정성스러워진 다음에라야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마음을 바로잡은 다음에라야 몸을 닦을 수 있다. (大學)

에서 뜻을 정성스럽게 함은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함(毋自欺)을 뜻한다고 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한다고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誠」의 字形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言+成」 즉 말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 말은 앎(致知)에서 온다. 「앎」에서 이루어진 말은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뜻이 담겨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번 그 뜻을 표현했으면 표현한 그 말대로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이롭이 바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誠」이다.

「天性은善良的 것이다.」「인간은 밝은 덕을 타고 태어났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면 실천을 위한 노력은 바로 「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남이 보는 데서나 혼자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 지속의 힘은 「中」이 「中」하고 「庸」이 「庸」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앎」과 「行動」을 합일시켜 주고 「人性」을 「天性」과 一致시켜 주는 힘의 작용을 「誠」이라 한 것 같다. 그럼 「誠」은 원래 어디서 오는 것일까.

「誠은 하늘의 진이다.」(誠者天之道也)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誠」은 사람이 있기 이전 우주가 탄생한 그날부터 존재했다. 하늘의 진은 우주운행의 무목적하며 정연하며 끊임없는 질서를 의미한다. 지구는 태양의 궤도를 따라 돌며 달은 지구를 안고 끝없이 돈다. 하루도 어김 없이 억만년을 돈고 저도 지칠 줄을 모른다. 영원한 운행이 있을 뿐이다. 아무리 돌아도 지치거나 원망하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誠」이라 한다.

사람의 「誠」은 이 하늘의 「誠」을 이어 받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함에서 이루어진다. 「誠을 誠하는 것은 사람의 진이다」(誠之者人之道也)에서 앞의 「誠」은 하늘의 「誠」이며 뒤의 「誠」은 사람의 「誠」이다.

「忠」을 위해 「誠」하는 것은 「忠誠」이라 하고 「孝」를 위해 「誠」하는 것은 「孝誠」이라 한다. 그것은 무엇을 바라거나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길이기 때문에 그저 가는데까지 그 길을 걷는 것이다. 그 길은 사람의 길이지만 하늘의 길과 일치되는 길이다. 古人이 가던 길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이다. 聖人은 나면서부터 하늘의 「誠」과 일치하는 「誠」을 갖추고 태어 났기 때문에 「誠」을 배우거나 힘쓰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誠」에 의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凡人은 그러하지 않다. 天誠을 배워 행해야 하므로 언제나 「誠」의 길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擇善而固執之者也) 무엇을 넓게 배우고 살피고 물으며 조심스레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두텁게 행함을 영원히 지속해 나감이 「誠」이다. 그렇지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해 질 것이며, 비록 약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강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꿰뚫듯 무슨 일이나 「誠」으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儒家育敎의 최고 이상인 「仁」思想의 실현을 위해 「天性」을 지켜 나갈 즉 밝은 「德」을 밝혀 나감에는 오로지 「誠」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 밝힘을 誠하는 것은 性이라 하고 스스로 誠을 밝히는 것을 가르침이라 하나니 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誠한다.」고 한 말은 「誠」과 「明德」(性)의 상관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五. 結 言

이상으로 《中庸》에 나타난 「性」・「中庸」・「誠」과 《大學》에 나타난 「明德」・「誠」 등 語彙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소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 그 요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大學》의 「明德」와 《中庸》의 「性」은 「仁」思想 실현의 근원적인 가능성을 역설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설정된 유사개념의 어휘다. 「仁」은 사람과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경지를 뜻한다. 이와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性」이 그러하거나 원래 「밝은덕」을 갖추고 타고 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이 착하고 밝다는 가정이 확실하므로 착함 위에 묻은 악한 때를 씻어 주고 밝은 덕위에 얹은 먼지만 털어주기만 하면 「仁」의 이상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大學》와 《中

庸」의 믿음이다.

2.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性」이나 「밝은 德」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거나 혹은 때가 묻어 이미 어두워진 「性」이나 「德」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仁」의 이상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大學》에서는 여덟 가지 原性 회복의 절차를 제시했으며 《中庸》에서는 「中庸」으로서 원성 유지와 원성 회복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大學》의 가르침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中庸》의 그것은 추상적이다. 原性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회복시켜 스스로 똑 바로 선 상태를 「中」이라 하며 그 「中」의 상태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을 「庸」이라 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中」을 확립했다 하더라도 「庸」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그 「中」은 거기서 끝나 버리는 것이다. 「밝은 덕」을 끝까지 지키고 밝혀나갈 때 人格의 「中庸」을 취한 사람이며 人格적인 「중용」을 취한 사람만이 自他的 共存共榮을 느낄 수 있는 「仁」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3. 「仁」의 이상은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仁」을 이룰려면 原性을 따라야 하며 「밝은 덕」을 밝혀야 하는데, 그 모형은 「中庸」이란 설계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中庸」이 觀念적이고 靜적인 설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서 「仁」의 이상을 달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중용」의 설계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동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誠」이다. 「誠」은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이며 쉬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주의 천체들이 영원히 운항하듯 나와 너와 그의 조화로운 질서는 이 誠에 의해 유지되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儒學의 人間觀과 世界觀의 최고 이상이다.